

‘전주시민이 행복한 경제 만들기’

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개최 배경 설명... 김승수 시장 “사회적경제, 상생의 길을 찾는 것” 주장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201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가 영국과 일본 등 세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린다. 이에 따라, 시는 7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제이 토틸트 영국 플리머스 대학교 경제학 교수, 에다히로 준코 일본 행복경제사회연구소 대표, 노노야마 리에코 일본 팔시스템(PalSystem) 도쿄 대표 등 3인의 해외연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컨퍼런스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행복의 경제학’이 지닌 의미와 올해 국제회의의 전주 개최 배경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대기업 등에 집중된 경제 권력을 분산시키는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에게 경제를 통한 진정한 행복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며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의 기준으로 개인의 행복을 쫓기 보다는 우리사회의 행복의 총량을 늘리는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또한, 그간 행복경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추진해온 정책들에 좀 더 많은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이끌어 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은 물론 앞으로 모든 정책 추진과 발빠름 있어 시민참여 부분에 역점을 둘 것이다”고 답했다.

이번 국제회의의 기조강연을 맡게 된 제이 토틸트 교수는 “현재의 경제 시스템이 환경파괴와 불공정 등의 문제의 근원 원인이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여력이 있어야 하며 경제성장을 축소시켜서는 안되고 아울러 지방정부가 여건을 만들고 이것을 문화로 정착시켜야 하며 투자자들과 투자은행 등과 같은 자원들



7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제이 토틸트 영국 플리머스 대학교 경제학 교수, 에다히로 준코 일본 행복경제사회연구소 대표, 노노야마 리에코 팔시스템 도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의 전주’ 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 항상 동원가능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노야마 리에코 대표는 “이 자리에 일본의 팔시스템 소비자 협동조합을 초청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전 세계에서 행복한 미래를 위해 펼쳐지는 다양한 노력에 대해 배우고, 함께 꼭 성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사카에서 전주의 비빔발축제가 열리다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다시 재개해볼 의향이 있는지는 기자의 질문에 “모두 함께 노력해서 해보자”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번 컨퍼런스의 특별강연을 통해 지난 2016년 개소 이후 금융과 복지의 통합적 지원

을 통해 서민금융 해결사 역할을 해온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개막식에서는 악성 빚 독촉에 시달리는 60여명의 부실채권을 소각하는 ‘부실채권 소각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불어 따뜻하게 살기 위한 행복의 경제학의 가치가 시민들에게 더 깊이 있게 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반,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의 전주’는 전주시와 국제생태문화협회인 ‘Local Futures’, 전국사회연대경제지부장부회의가 함께 주최해 올해로 4년째 매년 열리고 있으며 사람·생태·사회적경제 관련 국내·외 전문가와 기관, 현장기업가 등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도내 도심지 초미세먼지 주의보

도 “비 내려도 농도 높아”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일 22시부터 전주, 익산을 시작으로 6일 군산, 김제, 완주, 정읍, 진안, 임실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 전주시에는 초미세먼지(PM2.5)에 이어 미세먼지(PM10) 주의보를 발령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대기오염물질에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져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어도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는 높으며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 해부터 달라진 정책 중 하나로 미세먼지 경보발령이 전북 단일권역에서 시군 권역으로 세분화 되고, 7월부터 초미세먼지(PM2.5) 발령기준(90→75 $\mu\text{g}/\text{m}^3$) 및 해제기준(50→35 $\mu\text{g}/\text{m}^3$)이 강화 되면서 도내 대부분

도심 지역은 발령-해제-발령-해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해제까지의 지속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심장 질환자 같은 민감군은 물론 일반인도 실외 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해야 하며, 도민들께서는 외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야외 활동 때에는 마스크나 보호안경을 착용해야 한다”면서 차량운행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라북도 실시간 대기정보 시스템”(http://air.jonbuk.go.kr)에서 가입을 통해 대기오염 경보상황을 희망하는 지역별로 선택하여 문자로 받아볼 수 있으니 도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전북경찰-교통안전공단,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단속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교통사고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전북경찰청은 합동으로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 합동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과 경찰은 교통사고 줄이기 특별대책의 하나로 주요 도로에서 음주, 과속, 적재불량, 안전벨트 미착용,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일 서해안고속

도로 군산IC에서 음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및 자격적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음주운전 예방용품(졸음경보기, 아로마스틱, 비타민, 생수) 및 후부 반사판 등을 배부했다.

이곳에서 적발된 위반내용은, 불법 등화장치 설치 5건, 등화불량 2건, 후부반사판 훼손 13건, 안전벨트 미착용 2건, 후부안전판 설치기준위반 2건, 등폭번호판 봉인훼손 4건 등 총 27건이다. /송효철 기자

매일 INDEX
3면 - 미국 중간선거 결과
16면 - 단풍 향연 남원 지리산둘레길로

1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북도내 응시생 2만560명

시험은 전주·군산·익산 등 6개지구 63개 학교서 치러져
수험생 예비소집은 14일 교사장별로 성적은 내달 5일 발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고교와 교육지원청 등에 수능 시험 업무처리지침을 전달하고, 시험장 운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지역 수능 응시생은 2만560명이고 시험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6개 지구 63개 학교 777개 시험실에서 치러진다. 전체 운영 요원은 4,070명으로 시험장 운영요원 1,345명, 감독관 2,385명, 호송 및 경비경찰 265명이다.

청각, 지체, 뇌병변 운동장애 학생 등 특별관리대상자 13명은 동안차별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며, 뇌병변 등 운동장애 학생은 일반 학생의

1.5배 시험시간이 주어진다. 수험생 예비소집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각 교사장별로 실시하며 수험표는 원서를 접수했던 출신고등학교나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개발접수자)에서 배부한다. 성적은 다음달 5일 발표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15일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하며 신분증과 수험표를 지참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반도 가동한다. 시험 당일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반입금지 물품을 점검하고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렌,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

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와 통신·결제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가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반입가능하다.

이밖에도 수험생은 수험표 교부시 배부되는 수험생 유의사항 및 동영상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사전 숙지하여야 한다.

도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 내하고 있다고 밝혔고, 63개 시험장에 4단계에 걸친 시험장 방송점검을 실시하고, 지진을 대비하여 시설 안전점검을 마무리 한 상태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험생이 남은 기간 동안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위의 격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www.flpove.or.kr

315 농지연금지급01
415 농지연금지급02
0515 농지연금지급03
0615 농지연금지급04
0715 농지연금지급05
30815 농지연금지급06
30915 농지연금지급07
130915 농지연금지급08
130915 농지연금지급09

농지연금 신청하고~ 생활자금 매일 받고~

부모님 통장으로

매월 농지연금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힘든 농사일을 계속 해오신 우리 부모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으로 부모님의 근심을 덜어주세요.

농지연금이란? **fb** 농지은행 **kr**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소수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 제도로서, 경작이나 임대로 인한 추가수익도 가능하고 부부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

신청자격 : 65세 이상 /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한옥마을 찾는 외국인관광객 9만8624명

전년보다 16.2% 늘어

올해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을 빅데이

터 통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 외국인관광객이 총 9만8624명이 다녀가 1년 전 같은 기간의 8만4871명보다 16.2%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7월과 8, 9월에 각각 전년동월 대비 71.8%와 68.0%, 76.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중국관광객이 4만314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1만1424명)과 미국(7476명), 대만(3173명), 필리핀(3069)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에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00명이 더 찾아오면서 기존 주요 방문국이었던 아시아 국가를 넘어 미주 지역에서의 발걸음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송효철 기자